

유·초등 수석교사 수업나눔 운영

전북교육청, 남원·미룡·회현초서 100명 참여
수업영상 활용 다양한 수업협의 방식 현장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유·초등 수석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나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5일과 12일 오후 3시부터 이를에 걸쳐 남원초, 미룡초, 회현초 등에서 유·초등 교사 및 수석교사 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수업나눔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실 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직접 참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활용한 수업영상을 활용한다. 이날 7명의 수석교사는 ▲박소영 교사(이리유치원)의 연극놀이 ▲신경민 교사(이리동북초)의 점프밴드 체육활동 영상만들기 ▲소미옥 교사(김제초)의 영어수업 ▲김주영 교사(전주 신성초)의 타당성 토론수업 ▲원성제 교사(남원초)의 즐거운 생활 '가을맞이' ▲이정미 교사(군산 미룡초)의 국어수업 계절이 바뀌는 순간 ▲설명숙(군산 회현초)의 책놀이 그림책과 같은 주제로 수업나눔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마이크로 티칭(참여하는 교사가 학생 역할을 하며 학생의 수업 과정을 이해), 공유중심 수업나눔(수업자와 참여교사의 고민과 질문을 공유하며 수업나눔), 학생배움중심 수업나눔(학생 중심으로 활동된 영상을 바탕으로 학생 배움중심으로 수업협의)

등 현장에서 수업나눔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수업협의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교실 내 거리두기 유지 및 정규 수업시간 내 수업참관의 어려움 등으로 동학년 교사가 함께 수업을 보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시도하는 수업영상 활용 다양한 수업협의 방식을 현장에 안내해 향후 단위학교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완주교육한마당 개최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은 11월 한 달 동안 한해의 배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로 '완주교육한마당'을 신청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완주교육한마당은 교사들의 수업나눔 청소년의 자율동아리 발표, 진로직업체험 교과 체험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행사는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먼저 3~5일까지 3일 동안 관내 초·중·고 청소년 자율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꿈터, 놀이터, 마을터가 진행됐다.

완주 청소년 자율동아리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교사, 학부모 및 지역의 어른들이 멘토가 되어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다.

이번 행사는 체험으로 즐겁게 배우는 교과체험프로그램(수학·과학)을 비롯해 자율동아리가 주제가 되어 운영하는 꿈터(공연), 놀이터(체험부스) 그리고 마을강사 및 마을 진로체험기관이 참여하는 마을터(진로직업체험)으로 구성됐다.

또 교사들의 수업나눔은 3일부터 20일까지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특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업 사례를 나누고 공감토크, 교과포럼을 통해 서로를 토닥이며 함께 무엇인가를 꿈꾸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숙자 교육장은 "완주교육한마당"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멈추지 않고 배움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이며,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교육공동체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위해 계속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은 11월 한 달 동안 한해의 배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를 '완주교육한마당'을 신청서에서 개최한다.

전주대, 글로벌 탄소전문인력 양성한다

탄소융합공학과 '4단계 BK21사업' 선정… 7년간 정부 지원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가 석박사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부 '4단계 BK21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BK21사업은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20년 동안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탄소융합공학과는 전북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화 분야 연구·인력양성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

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는 등록금과 인건비가 지원되며 해외연수 기회와 공동연구 수행 실무교육 프로그램, 자기개발비 등이 제공되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과거 구 교육연구단장은 "전리북도 핵심사업인 탄소 산업 및 탄소밸리 육성사업과 연계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탄소전문인력을 양성 할 것이며 세계 최고수준의 탄소 전문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전주대는 탄소플링사업단, 탄소융합공학과, 탄소연구소 등 학부, 석·박사과정 및 연구소가 모두 개설된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전북도의 탄소산업 흥원 지정 성과와 탄소산업 정책 등에 발맞춰 기관·대기업과 협력해 탄소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다.

/장은성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IT 정보공학과 김용식 학생이 최근 '에너지 ICT융합보안 해킹경진대회'에서 대학생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대 김용식 학생, 해킹경진대회 2위

전북대학교 IT 정보공학과 학생이 해킹경진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

IT 정보공학과 김용식 학생은 최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산대에너지클러스터에서 열린 '에너지 ICT융합보안 해킹경진대회'에서 대학생부 우수상(한국전력공사 사장상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에너지 ICT 산업의 침해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대회에서는 가상의 마이크로 그리드시스템이 침해당한 상황을 가정해 침해 상황 판단 문제 등 에너지ICT융합보안에 특화된 문제가

출제됐다. 에너지 사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김용식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앞서 열린 본선에는 김용식 학생과 전북대 학생들이 이름을 올렸다. 본선 진출자 21명(대학생 10명·일반인 11명) 중 이주현(일반대학원 전자정보공학 컴퓨터공학전공 석사과정 3학기), 권지연(IT정보공학과 3학년) 학생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전국 예선전에서는 154명(대학생 108명, 일반인 55명)이 참가해 경쟁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도의회-전북경찰청 '맞손'

맞춤형 드론직무 교육과정 개설

전주비전대학교 후진학선도형사업단은 5일 비전관에서 도의회·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역 수요자 맞춤형 드론직무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후진학선도형)의 일환으로 전북지역의 4차산업혁명 미래인재육성 현장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실증자 수색용 드론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정을 개설, 매년 100여명의 직원을 선발해 교육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드론 활용한 다양한 정책 활용에 상호 협력한다.

이를 통해 도의회와 전북지방경찰청, 전주비전대학교는 지역경찰관의 드론직무역량(실종자 수색용 드론 활용)을 강화하고 도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온다라 인문주간 행사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거리두기의 시대, 함께하는 가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인문주간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育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최명희문화관과 공동주관한 인문 체험 함께하는 생생지역으로 10월 29일에는 '호남권 HK+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 좌담회'를 개최, 권역 내 HK+ 지역인문학센

터와의 상생·교류 및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프로그램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나의 삶 나의 이야기 작품 전시'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주대 HK+연구단 홈페이지(www.jj.ac.kr/hk) 및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jondara)을 통해 진행된다.

이밖에도 인문학술교양강좌,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온다라 교양 플리자·찾아가는 수요동법형 인문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